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2〉 두려움을 넘어서 가다 ㊦

‘불성’으로 두려움을 베라



근본은 강력한 존재

근본적인 참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이번 주제입니다. 이 원리는 티베트어로 ‘아셰(Ashe)’라고 합니다. ‘A’는 ‘처음’ ‘원시’라는 뜻이고 ‘she’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즉 ‘아셰’는 ‘타고난 생명력’을 뜻합니다. ‘아셰’는 또한 ‘힘’이란 뜻도 있고, ‘힘의 저장소’란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타고난 힘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불은 혼자 힘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바람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 붑니다. 흙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근본 불성과 분리할 수 없이 각각의 개별적 존재 안에 말입니다.

아셰는 때로 날카로운 칼에 비유됩니다. 근본 불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불성 그 자체에 힘이 있어 필요 없는 생각은 단칼에 쳐냅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를 엄격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잘못할 때는 혼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셰 원리는 힘과 단칼에 쳐내는 단호함을 통해 근본적인 참본성을 내보입니다. 근본적인 참본성의 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그 힘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 사악한 악의 무리가 붓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악에 휘말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들었습니다. 아셰(Ashe)의 ‘A’는 근본적인 열린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음은 ‘she’의 힘과 만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셰는 참본성으로부터 나온 강력한 존재입니다.

두려움, 불태우고 절단하라

아셰 원리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아셰는 두려움 없음의 근본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 없음을 이해하려면 두려움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무서워 덜덜 떨리는 느낌으로 근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때로 두려움은 겁에 질려 유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하고, 동물처럼 잔뜩 웅크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던 기준점을 잃기도 합니다. 중심을 잃은 공허한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은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연구하십시오. 두려움을 이해하게 될 때 두려움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큰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밖으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두려움을 태워 두려움 없음이라는 큰 불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없음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검은 것으로, 두려움 없음을 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당신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 없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모두 파헤쳐 알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나면, 진정으로 두려움 없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없음은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이것이 아셰의 원리입니다. 아셰의 날카로운 면도날이 두려움을 단칼에 잘라냅니다.

그러고 나면 유머 감각이나 빛을 느끼는 감각으로서 두려움 없음의 새벽이 옵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혼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 우리의 창조성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려움 없음의 표현입니다.

> “
>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 **파헤쳐 이해해 ‘두려움’ 없애야**
> **근본적인 고요 · 평화 찾아와**
> **불교에선 ‘공(空)’으로 표현**
> ”

‘공(空)’은 사라지지 않아

겁을 먹든 용기를 내든 아셰의 원리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참본성과 유사하고 참본성의 현현(顯顯)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뇌 안에, 우리의 정맥 안에, 혈액 안에, 살갗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이러한 마법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그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셰 원리를 발견하면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당신은 황무지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원숭이로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다가와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합니다. “이봐요. 당신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인간이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불을 지펴 음식을 익힙니다. 원숭이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존재의 전환에 대한 비유입니다. 존재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아셰 원리를 깨달으면 찬란함과 활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티베트어로 ‘지지(ziji)’라고 합니다. ‘zi’는 ‘빛남’을 뜻하고, ‘ji’는 ‘위엄, 존엄함’을 뜻합니다. ‘ziji’란 ‘신성한 빛’입니다. 혈색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너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요? 친구가 건강해 보이는 것은 그 친구에게서 신성한 빛이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빛은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근본적인 건강함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전사의 길을 가다 보면, 몸과 마음, 그리고 하는 말에서 항상 아셰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비싼 옷을 입고 머리를 공들여 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한 옷을 입어도 자연스럽게 불성이 표현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사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칩니다. 두 살짜리 어린아이와 이야기하든 상대방과 싸우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전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본성을 지닌 마음을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본성을 받아들이면 축복받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엄청난 경제적 부채를 안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우리를 떠납니다. 대신 수심이 가득한 이웃에 둘러싸이게 되겠지요. 하지만 샴발라 전사가 되기로 하면, 내면의 빛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싹둑 잘라 내버리는 면도날 같은 아셰의 원리를 생각하고, 근본적인 참본성을 생각하면 그침 없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아셰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경험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절대적 수준에서 보면 아셰 원리는 존재하지 않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공(shunyata, 空)’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음(emptiness), ‘아님(no-ness)’ ‘존재하지 않음(nonexistence)’을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음이 늘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는 이 존재하지 않음과 함께합니다. 좋은 일에서든 나쁜 일에서든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성(vajra nature)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본성입니다. 이는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본성으로,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셰 원리 역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칼이 아무리 예리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의 상태를 쳐낼 수는 없습니다.

영어 표현에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라는 뜻으로 ‘hard truth, the hard facts of life’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셰 원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hard fact이며 대체할 수도 없는 hard truth입니다. 신비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아셰는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아셰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원성이라는 선입견과 모든 종류의 개념들을 잘라냅니다. 참본성의 원리는 무아,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음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리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제 5기
범음 범패 학당 모집

불교의식, 작법, 밸런스테크닉, 실전사주명리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패의식 : 천도재 및 바라, 오공양작법, 실전강의, 각 사물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강료 10만원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문의처 : 010-5065-5690 / 범패원장 제봉 스님

밸런스테크닉
◆놀라운 10초 통증제어 (수기치유)
◆월1회 집중 특강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경력 : 30년 기공수련 / 월회비 : 10만원
◆연락처 : 010-6462-1859 (지도강사 : 선혜스님)

실전사주명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까지
◆지도강사 : 진제스님 (경력 30년 상담 및 지도)
◆연 락 처 : 010-8948-7948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수협 2층)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수기치유, 실전사주명리를 집중 지도합니다.

(사)영남범음범패원